





극심한 눈치보기 (Tension)

한/미 주요 지수
등락률: +0.00%

거래량 연평균 절반
이하로 위축. 거대한
방향성을 탐색하며 자본이
멈춰선 상태.



수면 아래의 변동성 (Catalyst)

미 국채 10Y: +5bp |
비트코인: \$103,000

엔비디아 실적 및 미국
PCE 발표 대기. FOMC
매파 기조에 따른 금리
인상 경계감 지속.



오늘의 액션 플랜 (Action)

원/달러 환율:
1,445원 (-5.30원)

달러 약세 국면을 활용한
원화 매수 기회. 아시아
위험 선호 확대로
기술/헬스케어 비중 확대.

미국 증시 요약

S&P 500 7,677.28 +0.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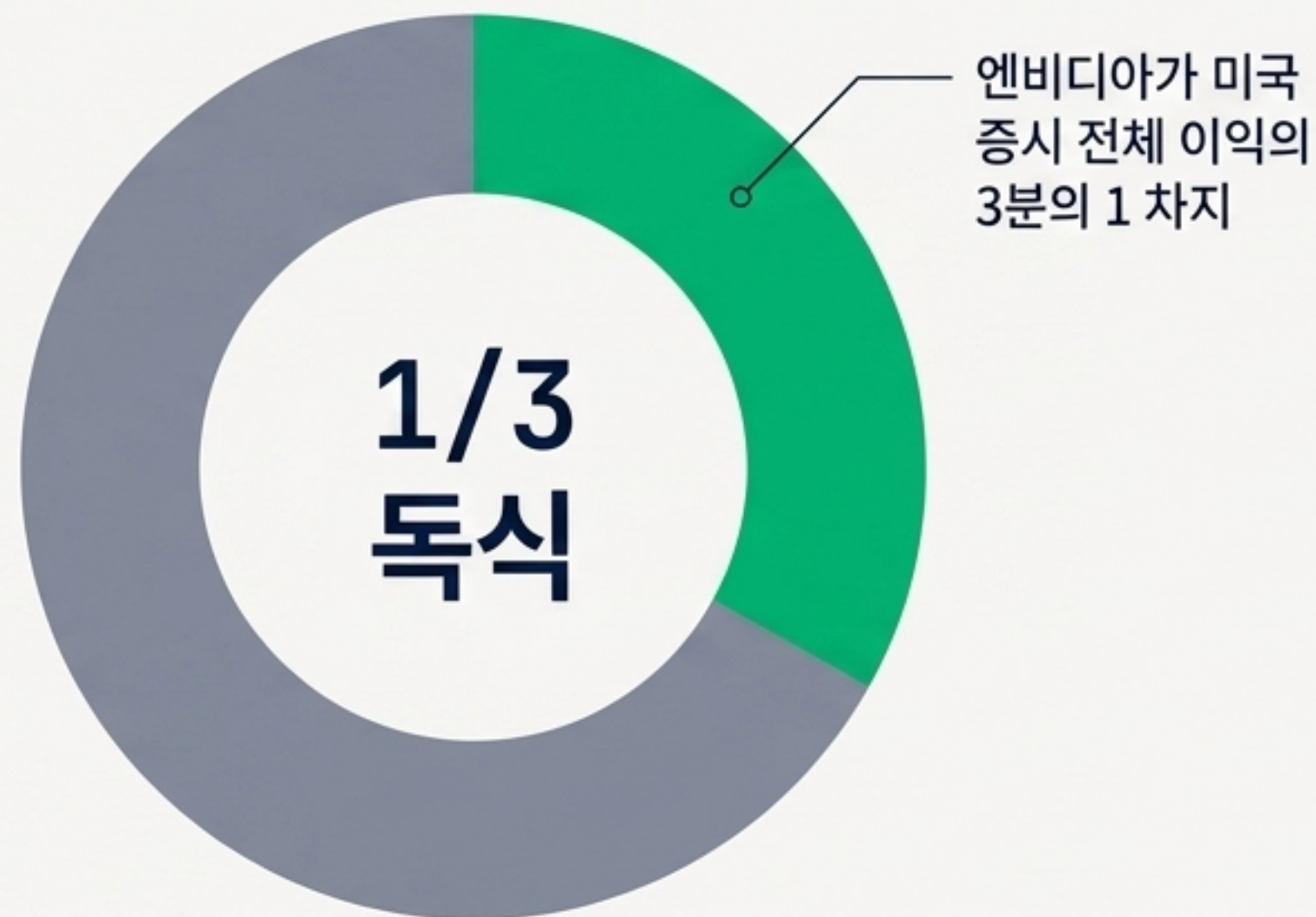
DOW JONES 53,547.68 +0.00%

NASDAQ 26,151.30 -0.08%



Risk Alert: 개별 종목 차별화 (아메리칸 리소스
상장 규정 미준수, 비아 1대20 주식병합)

하나의 기업에 쏠린 시선



빅 이벤트를 앞두고 쏠림 현상 극대화.
대기 자금 일부는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으로 이동 중.

국내 증시 - KOSPI 6,800선의 딜레마

KOSPI 6,808.21 (+0.00%)

KOSDAQ 826.87 (+0.00%)



‘전약후강’ 패턴: 개장 후 밀렸으나 기관 매수세로 6,800선 회복 시도
외국인/기관 동반 매도로 코스닥 약보합 고착

거래량 위축 (Volume Contraction)

올해 평균 거래량

100%

현재 거래량

45%

지수는 방어했으나 동력이 부재함.
거래량이 올해 평균의 절반 밑으로
추락하며 강한 추세 전환에는 한계
노출.

시장 심리 (위험 선호 ↑ ↓ 극심한 관망)

미국 🇺🇸 & 한국 🇰🇷

+0.00%

엔비디아 실적 및 미국 PCE 지표 압박.
철저한 눈치보기 모드.

유럽 🇪🇺 & 아시아 (중국/일본) 🇨🇳 🇯🇵

DAX +0.80% | 항셱 +1.59% | 닛케이 +0.46%

방산주 강세, 미국-이란 합의 기대.
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호조로 아시아 위험 선호 자극.

매크로 동인 (실적 대기 ← → 지정학적 호재)

Infra News: 다올투자증권 - 美 IBKR 전략적 제휴. 양방향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으로 자본 이동 인프라 확장.

FICC 대시보드 - 수면 아래의 소용돌이

미 국채 10Y



4.637% (+5bp)

FOMC 매파 기조 반영.
금리 인상 경계감 팽배.

달러인덱스



0.5 (-0.32)

유로 강세(ECB 금리
재평가)로 인한 상대적
약세.

금 (Gold)



\$500 (+\$18)

안전자산 선호.
단, PCE 경계감으로
단기 하락 압력 혼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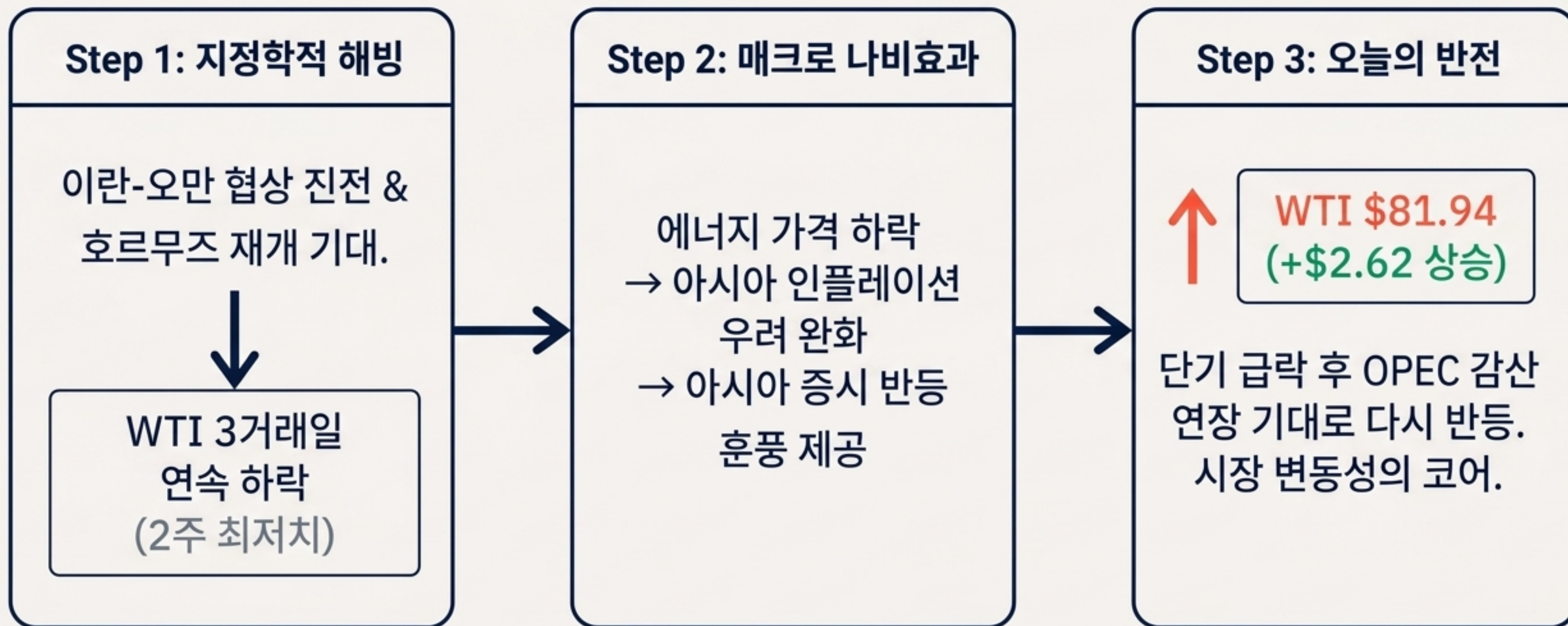
비트코인



\$103,000 (+\$1,240)

ETF 순유입 지속.
증시 관망 자금의
피난처 역할.

딥 다이버: 국제 유가의 나비효과



통화 가치와 환율의 역학

달러 약세 (USD)

달러인덱스: 0.5 (-0.32)

글로벌 이벤트 관망 및 ECB 매파적
행보에 따른 상대적 매력도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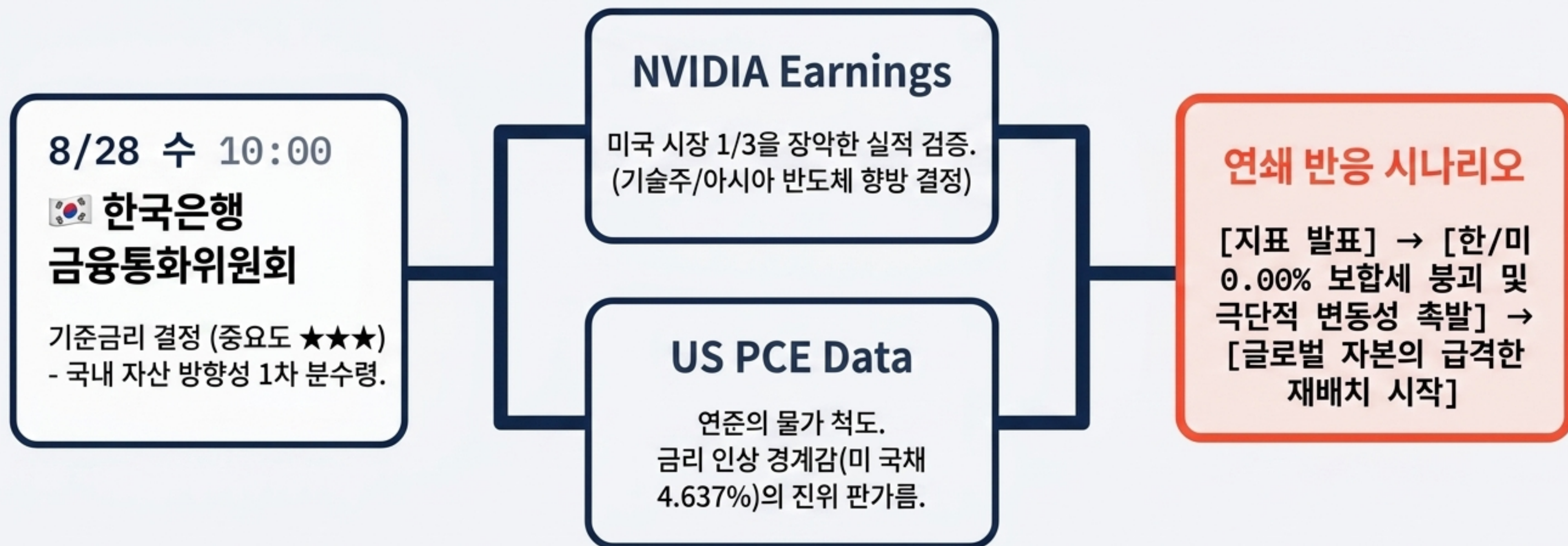
원화/유로 강세 (KRW & EUR)

원/달러: ₩1,445.00 (-5.30원)
EUR/USD: 1.1790 (+0.0031)

유럽 금리 경로 재평가 및
한국 증시 하방 경직성 확보.

인사이트: 달러 약세 국면 확정적. 금리 인상 기대와 맞물려 강력한 원화 매수 기회 도래.

글로벌 금융 시장 로드맵: 연쇄 반응 시나리오



최종 포트폴리오 액션 플랜 (The Playbook)

분야	무엇을 (What) & 왜 (Why)	어떻게 (How)
 FX (외환)	원화(KRW) 매수: 원/달러 1,445원 진입, 글로벌 달러 약세 및 국내 금리 상승 기대 중첩.	달러 비중 축소, 원화 자산 단기 비중 확대.
 Equities (주식)	아시아 기술 & 헬스케어 비중 확대: 유럽/중국 발 위험 선호 기조가 아시아 전반의 훈풍으로 작용.	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의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활용.
 Crypto (대체자산)	비트코인 옵션 헤지: \$103,000 돌파 등 증시가 관망 자금 쏠림. 폭발적 변동성의 사전 신호.	현물 홀딩 유지하되, 하방 리스크 방어를 위한 파생 상품 헤지 권장.